



# 내년도 경영계획 어떻게 세울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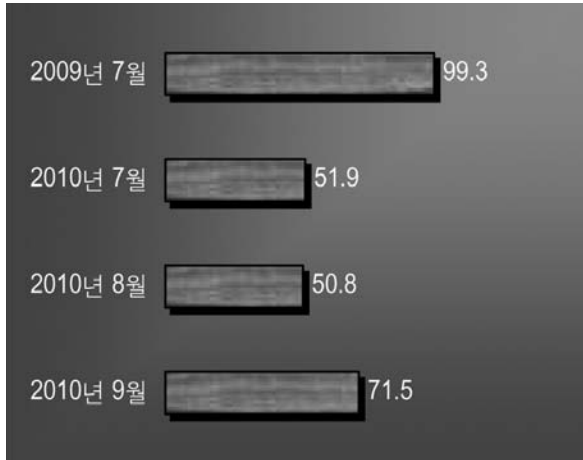
김현회 /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10월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차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들어간다. 물론 이보다 더 일찍 서두르는 기업도 있지만 대개는 10월부터 시작한다. 물론 12월에 가서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.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연시에 할 지라도 이 즈음에서 내년 경기 전망과 현 시점의 건설 경기 전망을 살펴 보며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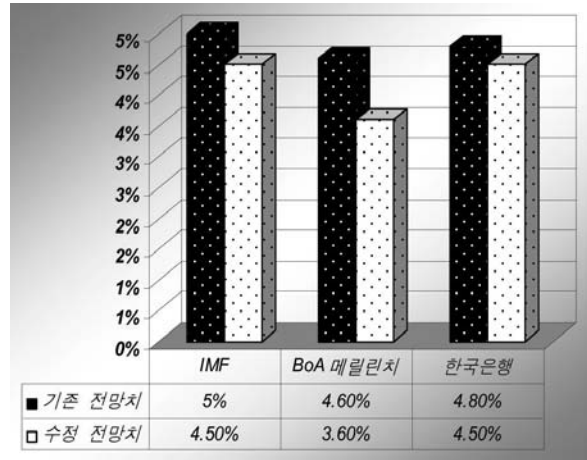
(2010년 9월~10월 자재 동향)

자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/4분기부터 주요 자재 가격의 인상 발표 이어지고 있음</li> <li>- 국제 원자재 시세의 상승으로 4/4분기에도 자재 단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움</li> </ul>
강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태풍과 추석연휴로 인하여 공사가 원활하지 않아 수요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관 관련 제품 단가 강세는 지속됨</li> <li>- 현재 내수시장 침체로 10월에는 별다른 단가 인상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상 시기의 저울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</li> </ul>
동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9월 LME 시세가 8월 대비 469원 인상되어 8,919원으로 결정됨. 이는 최고가를 기록한 5월 LME 시세(8,971원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임</li> <li>- 현재도 원자재 상승이 꾸준하여 10월 LME 시세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
STS관 및 관련 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STS부속 협가 보다 15~20% 인상된 9월 신희가를 적용하는 판매사들이 많으므로 판매 업체를 선정할 때 협가 적용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함</li> <li>- STS관은 9월에 단가가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</li> </ul>
주철관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철관의 입지가 많이 좁아져 일부 판매사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자재를 수입하여 단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나 납품시기 지연과 품질 저하로 오히려 역효과 초래</li> <li>- 향후 내진 설계가 더욱 강화되면 주철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고사(枯死)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움</li> </ul>
구매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상승이란 두 기류(氣流)가 충돌하며 건설 자재별로 단가 등락의 양상이 차별화되고 있음</li> <li>- 따라서 필요량 위주로 구매하는 지공 전략을 펴가며, 구매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흐름을 바로 바로 캐치해야 함</li> </ul>

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: CBSI



2011 대한민국 경기전망



(자료:한국건설산업연구원/원컨네트웍스, 2010년 9월)

건설회사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CBSI 즉 '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' 라는 것이 있다. CB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황, 100미만이면 불황을 업계가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. 그래프에서 보면 지난해 7월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(SOC) 예산 선 집행 등으로 100 가까이 다가섰지만 1년이 지난 올 7월에는 50포인트 대로 떨어졌다. 정부의 지원 효과가 거의 끝났다고 본 것이다. 그러던 것이 정부의 8·2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. 다시 어느 정도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. 이로 볼 때 건설사들의 내년도 경영 계획도 다소 긍정적으로 짤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나 세계 주요 금융기관의 경기 전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. IMF나 BoA메릴린치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낮추었다. 미국 및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수출 저조 등을 우려한 것이다. 결론적으로 2011년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

될 가능성이 있지만 건설 경기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. 따라서 우리 설비 건설 가족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새 해 구상을 해야 하겠다. ☺

**김현회(金炫會) 총괄본부장 프로필**



- 現 원컨네트웍스(구 설비넷) 사업총괄본부장
-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(91년)
- 삼성그룹 공채 입사(91년, 삼성화재 발령)
- 홍보실 근무(사보, 사장단 연설문 작성, 사내방송PD, 언론·인터넷 담당 등)
-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(뉴미디어, 스토리텔링 등) 과정 수료
-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(PDA영업, 리플렛 기획 등)
- 인터넷사업팀 근무(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,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)